

파워풀한 음악에 '시대의 아픔' 담아내다

3인조 혼성 펑크밴드 '투파이브' 10년 맞아 '봉선화 속 흥터' 발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위로 담아

드림을 때리는 킥 앤 스네어, 적막을 가르는 펑크 록 보컬과 목직한 베이스의 전술.

지난 15일 밤 전대후문 라이브 클럽 '부드러운 직선' (북구 호동로 22-1)에 들어서자마자 기자를 맞이한 소리들이다. 별안간 펑크 스피릿이더니... 십여 년 전 이곳은 성가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교회였다고 한다.

공연장 안쪽으로 향하자, 뺑 모자를 꼭 눌러쓴 소녀와 스냅백 보이 두 명이 악기를 들고 멋진 포즈로 기자를 맞이했다. 내심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사뭇 진지한 모습에 웃을 수만은 없었다. 범상치 않은 세 뮤지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광주 인디씬에서 십 년 이상 활동하며 잔뼈를 키워 온 펑크밴드 '투파이브'. 노래를 미리 듣고 간 까닭에 데스메탈스러운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순박한 청년들이었다.

투파이브는 목포공고 밴드부 '데드스카이' 출신 보컬리스트 권선제(32·대표)를 주축으로 기타리스트 정찬영(24)과 드러머 양지연(여·23)이 합류한 3인조 펑크밴드다. 10년 간 멤버의 교체 등이 있었음에도 권 씨가 중심을 잡았다. 이어 지난 22년 한 공연장에서 투파이브의 자작곡을 듣고 필이 꽃힌 소녀 팬 양 씨가 드러머 자리를 꿰찼다. 이후 가까이서 일을 돕던 정 씨가 기타를 잡으면



전남대 후문 라이브카페 부드러운 직선에서 만난 펑크밴드 '투파이브' 멤버들. 왼쪽부터 정찬영, 권선제, 양지연 씨.

서 삼인조 완성체가 된 것. '멤버들 중 과반이 '투파이브 성터' (성공한 덕후)이 아니냐'는 말에 이들은 겸연쩍게 웃어 보였다.

투파이브는 2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를 모티브로 한 앨범 '봉선화 속 흥터'를 전국 음원 사이트에 공개했다. 앨범 재킷은 양 씨가 직접 찍은 파도와 너울 사진으로, 바다 건너 먼 타향에서 꽃잎 같은 청춘을 희생당했던 일본군 위안부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나가면 그만인지 흘러가면 끝난건지/ 속에 남은 기억들 아물지 않은 상처 들만 남았는데 남았는데/ 희망을 가져본다/ 돌아와 내 꽃송이 들아 / 다시 돌아와 내 꽃송이 들아"

곡을 듣고 있으니 서정적인 가사가 와닿았지만, 기저에는 펑크 록의 강렬한 기류가 흘렀다. 음울한 멜로디가 아니라 파워풀하고 직선적인 사운

드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무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으로 다가왔다.

"광주는 5월의 아픔을 간직한 도시인 만큼,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 문제에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뮤지비디오에는 나주에 위안부소녀상을 만든 임정임 작가의 아들 김세형 씨가 출연해 의미를 더했죠"

이번 곡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권 씨의 얼굴은 슬픈 기색이 역력했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 작사·작곡부터 녹음, 믹싱, 편곡까지 투파이브가 직접 맡아 위안부 문제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뮤지비디오 촬영과 프로듀싱까지 전부 '셀프'로 진행해 앨범에 대한 애착이 크다.

광주 북구에서 집배원으로도 일하고 있는 권 씨의 독특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낮에는 사람들의 편지를, 밤에는 음악을 배달하고 있다. 쿨노래로 자작곡을 흥얼거려다 옆길로 새는 바람에 난처한 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예술가'와 '생활인'이라는 두 역할에 충실하며 틈틈이 갖게 음악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투파이브는 사연을 신청하면 이와 어울리는 곡을 들려주는 미니 콘서트도 펼쳤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열악한 인디 신 뮤지션들에게는 더 그렇다. 그럼에도 투파이브는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며 나름의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좋아하는 것'과 '해야하는 것'이 등치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보여주는 듯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양지연 드러머가 투파이브의 대표곡 '좋았다 그 날'을 연주하는 모습.



기타리스트 권선제, 정찬영 씨가 주고 받는 사운에서는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진다.



ACC서 오는 3월 17일까지 열리는 '살람, 히잡' 전.

이슬람 문화 '히잡', 강연으로 만나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연 교수 강연... 2월1일 아시아문화박물관

'살람, 히잡' 특별전 연계

이슬람에 대한 편견, 선입관 가운데 '히잡'도 하나의 요인이다. 이슬람 문화의 배경, 역사적 맥락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히잡'은 자칫 억압의 상징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히잡은 이슬람의 문화를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다.

오는 2월 1일 세계 히잡의 날을 맞아 '히잡'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4에서 진행되는 '살람, 히잡'이 그것.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연 연구교수가 히잡을 포함한 서아시아 의복문화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오는 3월 17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살람, 히잡' (아시아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2)과 연계해 진행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시에서는 예멘 출신 사진가 부수라 알무타와엘의 '엄마, 딸, 인형'이라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국에서 첫 소개되는 작품으로 9개 사진연작은 히잡에 대한 비판이 아닌 그것으로 억압하는



구기연 교수

양상에 대해 비판한다. 전시 기획자의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이해규 학예사가 강연자로 나서 이번 전시 기획과 구성에 대한 단상 등을 풀어낼 예정이다.

ACC 관계자는 "히잡"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슬람과 아시아문화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한다"며 "전시 관람과 함께 이와 연계된 강좌를 들음으로써 이슬람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히잡은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기 위해 착용하며 그 자체로 무슬림을 드러낸다. 히잡의 쓰임새에 따라 각기 차도로, 니캅, 부르카 등 다양하게 불린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형태의 히잡은 이슬람 문화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상과 여성들의 인터뷰 자료는 무슬림과 히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자유분방 '아이리쉬 음악' 속으로

카페뮤지엄CM, 오늘 'Friday Live in CM' 공연

클래식이 오래 전 유럽에서부터 '앉아서 감상하는 음악'이었다면, 아이리쉬 음악이 속한 전통포크음악은 민중들이 팝이나 마을 축제에서 서서 연주하고 춤추며 즐기던 자유분방한 음악이다.

카페뮤지엄CM(대표 정은주·CM)이 선보이는 'Friday Live in CM' 124회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8시 CM(동구 문화전당로 29-1)에서 펼쳐진다.

이번 주인공은 자유로운 감성을 담은 아이리쉬 밴드 'VeryIrish'. 아이리쉬 세션이 자주 연주하는 곡들로 레퍼토리를 구성했으며, 아일랜드 전통 악기인 바우린, 포크음악 피플, 아코디언, 틴 휘슬과 아이리쉬 플루트 등 이색적인 악기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Toss the Feather의 '슬리고 메이드'를 들을 수 있다. 게리오웬의 '윌링 맨시'는 아일랜드 민화에 나오는 뱀신을 모티브로 한 곡이다.

데니스 머피의 '발리 데스몬드'는 폴카 버전으로, 소니 브로겐의 '빈센트 캠퍼'는 마주르카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안개 덮인 산의 '베니쉬 미스포츠', 오프 투 켈리포니아의 '블루힐의 소년들'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밴드 'VeryIrish' (CM카페미술관 제공)

CM 사군 음악감독은 "아일랜드에는 누구라도 멜로디만 알고 있다면 연주에 참여할 수 있는 특유의 문화가 있다"며 "아이리쉬 밴드의 멜로디를 들으며 누구라도 함께 흥얼거리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목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관람비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진은숙, '클래식계 노벨상'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수상

아시아인 최초... "전에 받았던 어떤 상보다 영광스러워"

한국 작곡가 진은숙(사진)이 '클래식 음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을 거머쥐었다.

독일 에른스트 폰 지멘스 재단과 바이에른 예술원은 25일 진은숙을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인이 이 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은숙은 상금으로 25만 유로(약 3억6000만원)을 받는다.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은 에른스트 폰 지멘스 재단의 이름으로 바이에른 예술원이 수여하는 상으로, 클래식 음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며, 노벨상이나 필즈상에 비유되기도 한다.

클래식 음악 작곡·지휘·기악·성악·음악학 분야를 통틀어 해마다 1명을 선정해 시상하며, 인류 문화에 대한 기여도를 수상자 선정 기준으로 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 올리비에 메시앙,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레너드 번스타인, 클라우디오 아바도, 다니엘 바렌보임,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 알프레드 브렌델 등이 있다.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진은숙은 "제2의 고향인 독일에서 이렇게 중요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전에 받았던 어떤 상보다 이 상을 받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진은숙은 함부르크 음대에서 가장 작곡가 죄르지 리게티를 사사했다. 2004년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그라베마이어상을 받으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후



비후리 시벨리우스 음악상(2017), 마리 호세 크라비스 음악상(2018), 바흐 음악상(2019), 레오니 소닝 음악상(2021) 등을 휩쓸었다. 그는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오케스트라 레지던스 작곡가(2001), 통영국제음악제 레지던스 작곡가(2005), 서울시립교향악단 상임작곡가(2006), 영국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예술감독(2010)을 맡는 등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와 공연장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며 2022년부터는 통영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